

## 제8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시 / 신해욱

소설 / 정지돈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제8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199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해 ‘간결한 언어를 통해 타자의 진면목을 탐색해온’ 신해욱 시인과, 2013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문단에 나와, ‘견고한 사유의 촘촘한 직조물을 개진해온’ 정지돈 작가가 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인 소설가에게는 김현문학패와 함께 각각 1,000만원(시 부문), 1,500만원(소설 부문)의 창작지원금이 수여된다. 금년도 시상식은 9월 30일(금)에 거행될 예정이며, 장소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 추후 결정하여 다시 알리기로 했다.

### 신해욱—자신을 최소화하여 타자를 환대하는 극진함을 향해

**신해욱 시인** 197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간결한 배치』 『생물성』 『syzygy』 『무죽영원』, 장편소설 『해몽전파사』, 산문집 『창밖을 본다』 『비성년열전』 『일인용 책』 등을 펴냈다.

### 정지돈—포괄할 수 없는 ‘세계 전체’를, 종이라는 평면 위에 옮겨 적으려는 시도

**정지돈 소설가** 1983년 대구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에서 영화영상학과 문예창작학을 전공했다. 2013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내가 싸우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살 것이다』 『농담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편소설 『야간 경비원의 일기』, 장편소설 『작은 겁쟁이 겁쟁이 새로운 파티』 『모든 것은 영원했다』 『...스크롤!』, 산문집 『문학의 기쁨』(공저) 『영화와 시』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 등을 펴냈다.

\* 인물 이미지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제8회 김현문학패 선정 과정\_김현 32주기를 맞이하며

2015년, 시장 논리에 매몰된 문학의 독립 활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의 설립과 함께, 한국 문학비평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의 25주기를 기념하여 제정된 ‘김현문학패’는 그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첨부한 ‘김현문학패 소개’ 참조)에 따라 제1회 수상자로 성기완 시인과 한유주 소설가를, 제2회 수상자로 이제니 시인과 김태용 소설가를, 3회 수상자로 강정 시인과 서준환 소설가를, 제4회 수상자로 신영배 시인과 백민석 소설가를, 제5회 수상자로 김경후 시인과 박솔피 소설가를, 제6회 수상자로 신동욱 시인과 김숨 소설가를, 제7회 수상자로 김언 시인과 윤해서 소설가를 선정한 바 있다.

김현문학패 시행 8년차를 맞은 금년 1월, 본 선정위원회(김정환, 김태환, 김형중, 조강석, 이인성)는 규정에 따라, 1) 2021년 현재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1974년생) 이하로서, 2) 등단 이후 해당 장르에서 2권 이상의 저서를 펴냈으며, 3) 그 마지막 저서가 지난 3년(2019~2021년) 사이에 나온 시인·소설가들의 명단과 그들의 출간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현과 문학실험실의 문학관을 잘 반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여 명의 문인에게 비공개로 전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압축된 후보자들의 전 작품을 검토하며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본 선정위원회는, 이제 김현 32주기(6월 27일)에 즈음하여 제8회 수상자로 신해옥 시인과 정지돈 소설가를 결정·발표하게 되었다.

### 제8회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 신해옥—자신을 최소화하여 타자를 환대하는 극진함을 향해

신해옥의 시는 최대한의 사유를 가장 간결한 언어를 통해 드러낸다. 수식이 과하거나 이미지가 넘쳐나는 것을 경계하며 최단거리를 통해 타자에 이르는 언어는 그 간명한 직필함으로 인해 오히려 풍부해진다. 최근의 시에서 신해옥은 수사의 화려함 대신 발화자의 위상을 분주히 바꾸어가며 타자를 탐색하고 있는데 독자는 이를 환대의 언어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가 부풀어서 타자를 낮추는 대신 자신을 최소화하여 타자의 진면목을 탐사하는 신해옥의 언어는 마치 깊은 해저에서 물길을 찾는 것처럼 절실하게 타자에 이르는 길을 탐색한다. 그리고 그의 이런 열렬한 탐사는 독자에게 극진한 환대의 경험을 선사하는데, 이는 이즈음 맹목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힐링’의 언어를 넘어 인간관계의 낮은 심층을 투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시적 이정표임이 분명해 보인다.

#### 정지돈—포괄할 수 없는 ‘세계 전체’를, 종이라는 평면 위에 옮겨 적으려는 시도

정지돈은 소설책 말미에 수많은 참고문헌을 다는 작가다. 이는 그가 지적인 작가라는 단순한 사실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그의 소설 속에서 저 다양한 자료와 사유들은 견고하게 얽히고설켜 촘촘한 직조물(Texture)로 변형된다. 그러나 그 방대한 직조물이 철 지난 ‘총체성’의 규율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의 소설은 ‘성좌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세계 텍스트’라고 해야 맞는데, 말끔한 서사로는 포괄할 수 없는 ‘세계 전체’를, 종이라는 평면 위에 모두 옮겨 적으려는 시도,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필경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자의 글쓰기가 낳은 산물이다. 그러므로 “내가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의 세포가, 유전자 정보가 잉크로 변해 종이 위에 활자로 새겨질 수 있다면”이라는 절절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의 소설 쓰기는 책에 따라 살고, 책을 쓰며 살 뿐만 아니라, 아예 책으로 변이하기를 원하는 특이한 작가상을 부각시키며 이른바 ‘아카이브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과 평가를 요한다.

#### 선정위원

김정환 (시인)  
김태환 (문학평론가,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문학평론가, 조선대 국문과 교수)  
이인성 (소설가, 문학실험실 대표)  
조강석 (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 김현문학패 소개

###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

문학실험실은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비평가 고 김현의 25주기(2015년 6월 27일)를 맞아, 그를 되새기고 기리며, 그의 이름으로 한국문학의 진정한 질적 진화를 위해 '뜨거운 상징'(김현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을 제정·시행키로 결정하였다. '김현문학패文學牌'는 문학상으로서의 분명한 개성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상을 통해 한국문학의 한 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문학적 특성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해나갈 것이다(패에는 패거리라는 뜻도 담겨 있다). 우선, 이 문학패는 김현의 미래지향적 문학관에 근거를 두고 그가 일관되게 옹호한, 한국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정신을 기본적인 선정 지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일정한 선정 조건 아래(아래 참조), 한 해 동안 추수된 단일 작품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한 '작품상'이 아니라, 한 작가의 전 작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작가상'의 성격을 띤다.

### 시행 규정

'김현문학패'는 위의 목적에 따라 매년 시인·소설가 각 1명씩을 선정하여 기념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000만 원/소설 1,500만 원)을 수여한다. 단, 그 수여 대상자는, (1)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만 48세(김현의 타계 나이) 이하이며, (2) 등단 후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하였고, (3) 그중 가장 최근의 저서를 선정 연도 전해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출간한 시인·소설가로 한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을 장르별로 분리하지 않고 선정 과정을 합동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수여 후보 자격이 3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이나 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선정자와 선정 이유만을 발표한다.

### 시행 절차

매년 1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인·소설가의 명단과 출간 저서 목록을 작성하여 일정 수의 추천위원들에게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선정위원회가 이를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압축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선정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6월 말 김현 기일에 즈음하여 최종 선정자를 결정 발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9월 말에 시행한다.

### 역대 수상자

|            |       |        |
|------------|-------|--------|
| 제1회 (2015) | 시 성기완 | 소설 한유주 |
| 제2회 (2016) | 시 이제니 | 소설 김태용 |
| 제3회 (2017) | 시 강정  | 소설 서준환 |
| 제4회 (2018) | 시 신영배 | 소설 백민석 |
| 제5회 (2019) | 시 김경후 | 소설 박솔뫼 |
| 제6회 (2020) | 시 신동욱 | 소설 김숨  |
| 제7회 (2021) | 시 김언  | 소설 윤해서 |
| 제8회 (2022) | 시 신해욱 | 소설 정지돈 |

## 김현 1942~1990

1942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한 김현은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 1962년 『자유문학』에 『나르시스 시론』을 발표하며 등단한 그는 곧 김승옥·최하림 등과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게 되고, 그의 열정적 동인 활동은 이후 『사계』, 『68문학』 등을 거쳐, 1970년에 김병익·김치수·김주연과 함께 계간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고 1975년에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하는 문학사적 결실로 맺어진다.

1971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취임한 후 서울대 인문대 불문과로 옮겨 재직하면서, 그는 프랑스 문학 연구자이자 한국 문학 비평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한국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사 기술의 새 바람을 몰고 온 『한국 문학사』(김윤식 공저)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비롯하여, 『상상력과 인간』, 『사회와 윤리』로부터 『문학과 유토피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책읽기의 괴로움』 등을 통과해 마지막 『말들의 풍경』에 이르는 일련의 평론집들이 그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정치한 분석·해석을 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 영역에서는 『프랑스 비평사』를 시발점으로 바슐라르, 제네바학파, 르네 지라르, 미셸 푸코 등의 비평 세계와 방법론을 추적하는 역작 연구서들과 편서들이 그의 넓은 문학적 관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발병한 간염이 서서히 그의 몸을 허물어나갔지만, 그의 문학적 열정과 사명감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집필·연구 활동 속에 간염은 기어이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1990년, 때 이른 그의 죽음을 물고 왔다. 향년 48세.